

## 고등학생들의 연애폭력에 대한 예측변인

서 경 현\*

삼육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이 영 자

남양주시 청소년상담실

본 연구에서는 한 번 이상 이성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이 있는 306명의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이성을 사귀는 가운데 겪은 폭력의 실상을 파악하고 변량분석을 통하여 남녀 차이를 분석한 후,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으로 연애폭력을 예측할 수 기대변인들도 살펴보았다. 연애폭력을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는 변인들은 주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근거로 하여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23.4%와 여학생들의 41.1%가 이성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고하여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는 주로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던지'거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유형의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들이 연애폭력에 대해 남학생들보다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과 학교에서의 폭력경험, 폭력적 컴퓨터게임, 음주 경험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남학생들의 연애폭력 피해가 어머니로부터의 자녀학대와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인데,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학교에서의 폭력경험, 음주도 남녀 모두에게서 연애폭력 피해와 높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학생들의 연애폭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은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과 폭력적 컴퓨터게임이었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목적,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 사귀 사람 수, 연애폭력 피해가 연애폭력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청소년, 연애폭력, 가정폭력, 사회학습이론

\* 이 논문은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을 수정하는 데에 귀한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 경 현 (139-742) / 삼육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 E-mail: khsuh@syu.ac.kr

서양에서도 연애평력(dating violence) 혹은 데이트폭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20년 전쯤의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 생소한 단어일는지 모른다. 이성을 사귀는 것이 언제나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사춘기의 소녀들뿐 만 아니라 예전에는 사회과학자들까지도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의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를 용서해 주는 평화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에 이성간의 교제의 기간이 서로 낭만을 나누고 달콤함을 추구하는 시기만이 아니라 그와는 대조적으로 교제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분노, 질투, 혼란 등의 정서적 표출의 대상이 되는 시기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예: 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연애평력은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서양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성을 사귀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세 명중에 한 명이 상이 데이트 도중에 어떤 형태이든 육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Levy, 1990),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음이 증명된 연구가 최근에 있었다(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및 김신섭, 2001).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따르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였거나 부모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을 목격하면서 자란 아동들이 성장하여 여러 인간관계에서 그런 행동들을 모방한다고 한다(Bandura, 1977). 연애평력도 이런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연애평력을 설명하고 있는 사회학습이론 모델들 중에 Riggs 와 O'Leary(1989)에 의해 제안된 모델이 여러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Riggs와 O'Leary의 모델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른 유형의 폭력들과 그에 따른 문제의 구조에 대한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그들의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변인들을 두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소인요소(predisposing factors)라고 할 수 있는 전후관계성 변인들(the contextual variables)과 예측상황(situational predictors)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적 변인들(situational variables)이 있다. 전후관계성 변인들은 "상대방에게 과격하게 행동할까"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좀 더 근원적인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친밀한 관계에서의 호전성,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행사, 폭력은 갈등상태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 과거의 폭력행사 경험, 성격,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범주인 상황적 변인들은 스트레스, 알코올, 상대방의 공격적 행동, 갈등의 존재, 관계에 대한 만족, 폭력사용 후 이득에 대한 기대인데, 이것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이 나타날까"를 예언해 주는 좀 더 직접적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애 폭력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는 제어이론(Control Theory)이 있다. 제어이론의 기본개념은 '폭력행동과 같은 일탈행동은 학습된 행동이라기보다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이다(Hirschi, 1969). Friedman과 Rosenbaum(1988)은 '일탈행동적인 기질은 유전된 인간의 본성이며, 모든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했다. 제어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으로는 '세상에는 한가지 도덕적 체제만이 존재하고 인습적 도덕체제를 벗어난 행동이 일탈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Reiss, 1951; Nye, 1958). 제어이론에 따르면 인습적 행동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을 방지하는 것은 사회결속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한다. Hirschi(1969)는 사회결속을 애착(attachment), 신뢰(belief), 약속(commitment), 연루(連累, involvement)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러나 연애평력을 설명하는 제어이론은 사회학습이론보다는 학자들에게서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대부분 그 동안의 연애 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이성적인 논쟁과 언어폭력은 제외하고 신체적인 폭력에 관해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Lloyd와 그의 동료(Lloyd, Koval, & Cate, 1989)들은 이 세 가지의 차이점과 관계성을 검증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언어폭력도 신체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삶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체적 폭력의 전조이기 때문에 언어폭력도 중요한 연구대상임을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이후의 연구들에서 실제로 언어폭력이 신체적인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증명되었다(Stets, 1990; Stets and

Henderson, 1991).

그렇다면 이성을 사귀면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남녀의 차이는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데이트 도중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을 때 남녀간의 신체적인 폭력사용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Stets & Henderson, 1991 등).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남녀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 Symons, Groer, Kepler-Youngblood, & Slater, 1994; O'Keefe & Treister, 1998), 두 연구에서는 청소년 여성들이 더 많은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shee, 1996; Plass & Gessner, 1983). 얼마 전에 실시된 메타( $\mu$ )분석 연구(Archer, 2000)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인 공격을 약간 더 많이 하지만,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힐 정도의 폭력은 남성들이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62%가 여성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진 연구(서경현 등, 2001)에서는 연애폭력을 행사한 남학생의 비율이 42.5%이었으나, 여대생들의 비율은 31.2%로 나타나 남학생들의 연애폭력 행사가 여학생들의 연애폭력 행사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Molitor와 Tolman (1998)의 연구에서는 연애 중 폭력 경험은 남학생이 37.1% 이었고, 여학생이 36.4%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동기로는 남학생들은 음주가 가장 많았고, 자기방어라고 보고한 학생들이 6%인데 반해 여학생들은 음주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37%의 학생들이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폭력을 쓸 수밖에 없다고 보고해 자기방어가 폭력행사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남학생들은 연애폭력을 그리 위협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그것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주는 폭력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영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의 한 연구(Hird, 2000)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의 신체적·성적 폭력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여러 연구들에서 연애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연애폭력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그들 중 남성이 여성보다 연애폭력에 대해 더 수용적인 반응을 보였다(Henton, et al. 1983; Arias & Johnson, 1989). 여러 연구들에서 연애폭력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ets & Pirog-Good, 1989; O'Keefe, 1998). 이런 연구 결과는 최근 청소년들을 1년 반 동안 추적한 종단적인 연구(Foshee, Linder, MacDougall, Bengdiwala, 2001)에서 다시 한번 검증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의 연애폭력 행사는 연애폭력의 피해자 친구의 유무, 음주, 유색인종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만이 연애폭력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O'Keefe(1997)의 회귀분석연구에서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여성(남성이 여성에게 행사하는) 폭력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데이트 도중에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들은 여성→남성(여성이 남성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정당하지만 남성→여성 폭력은 정당치 않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연애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회귀분석 연구(Bookwala, Frieze, Smith, & Ryan, 1992)에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성들의 연애폭력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연애폭력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연구에서는 여성들은 연구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연애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연애 도중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연애폭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성적반대신념척도(Adversarial Sexual Beliefs Scale)를 사용한 것과 여성들이 남성 우월적인 성적관계를 적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연애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여준 것이 아닌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경현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2001)에서는 연애폭력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는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연애폭력에 대한 강

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폭력에 대한 가족력’처럼 연애편력을 설명하는 사회학습이론 중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으면서 여러 상충되는 연구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예측변인은 드물다. 폭력의 세대간의 전달(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결론들을 도출(導出)해 냈다. 어떤 연구들에서는 부모 사이에 행해지는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연애편력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결과를 얻었다(Keefe, Brockop, & Chew, 1986; DeMaris, 1987; Riggs, O’Leary, & Breslin 1990; Smith & Williams, 1992; Foo & Margolin, 1995; Foshee, Bauman, & Linder, 1999),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둘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내는데 실패하였다(Comins, 1984; Stets et al., 1987; Follette & Alexander, 1992; Riggs & O’Leary, 1996). 부모 사이에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노출과 연애편력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나(DeMaris, 1987; Tontodonato et al., 1992; Foo & Margolin, 1995; O’Keefe, 1997), 한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Sigelman, Berry, & Wiles, 1984). 한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에게서 부모들 사이에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노출 중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격만이 연애편력을 예측변인으로 나타냈다(서경현 등, 2001).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폭력이나 신체적 처벌에 대한 경험, 즉 자녀학대에 대한 피해와 연애편력과의 연관성은 어떤 연구들에서는 남녀 차이 없이 강하게 나타났지만(Sigelman et al., 1984; Smith et al., 1992), 여성들에게서만 강한 연관성을 보인 연구가 있었는가 하면(Tontodonato et al., 1992), 남성에게서만 강한 연관성을 찾아낸 연구들도 있었다(Marshall & Rose, 1988; Burke, Stets, & Pirog-Good, 1988).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부모-자녀간의 폭력과 연애편력과의 관련성을 찾아내는데 실패하였다(O’Keefe, et al., 1986; Foo, et al., 1995; Riggs, et al., 1996; O’Keefe, 1997, 서경현 등, 2001).

음주가 부부사이의 폭력(예: Hamilton & Collins, 1998)과 자녀학대(예: Famularo, Stone, Barnum, & Wharton, 1986)와 관계가 있다는 수많은 연구들이 지금까지 보고되었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음주와 가정폭력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음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왔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음주의 역할이 애매하여 개념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연애편력과 음주와의 관계도 음주에 대한 가족력, 음주 여부, 폭력을 행사할 때의 음주여부 등 여러 가지 변인들과의 복잡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몇몇의 연구들(Coleman & Straus, 1983; Ray & Gold, 1996)에서는 남성들에게서만 음주와 연애편력 행사와의 관계성이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 Lloyd, 1982; Foo et al., 1995; O’Keefe, 1997)에서는 남녀 모두에게서 연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어떤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인 음주양식은 연애편력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갈등상황 그 시점에서의 음주와 연애편력과의 연관성만이 발견되었다(Stets et al., 1991; Tontodonato et al., 1992). 술에 취한다는 것은 취중행동으로 인해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음주 그 자체가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폭력과 가까워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자아존중감, 좋은 학업 성취도,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 등이 폭력으로부터 방어해 준다는 연구들(Garmezy, 1985; Rutter, 1987)도 있었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적 최근의 한 연구(O’Keefe, 1998)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남자 고등학생들이 연애편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된 남자 고등학생들 모두 연애편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경현 등, 2001)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연애편력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으나, 남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노출은 연애편력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1996년 미국 질병조절 및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청소년들의 연애편력을 문서화했고, 현재 많은 고등학생 연애편력 피

해자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대안프로그램(Alternative program)에서 수학(修學)하고 있으며 연애편애력은 청소년 건강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런 고등학교 대안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 57명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심리적으로는 물론 신체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James, West, Deters, & Armijo, 2000). 현재 미국에서는 연애편애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와 함께 예방책과 해결책에 대한 연구(Foshee, Bauman, Greene, Koch, Linder, & Macdougell, 2000; Weisz & Black, 2001)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 그들은 빠른 중재가 피해를 줄인다는 결론을 내리고(Henderson, 2000), 고등학교나 그 이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연애편애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이성을 사귀는 가운데 겪는 폭력의 실상을 파악하여 남녀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연애편애력과 관계가 있을 만한 예측기대변인들도 성별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더 나아가 예측기대변인들이 연애편애력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줄 수 있는지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logistic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폭력은 언어 폭력은 배제하고 육체적인 폭력만으로 제한하였다.

## 연구 방법

### 대상자 및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3곳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와 검사지는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주어졌으나 그 중에 410명의 자료가 회수되었다. 수거한 410부의 자료 중에서 이성친구와 데이트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자료들과 불완전한 자료들은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최종적으로 남학생 128명과 여학생 178명으로 총 306명이 채택되었는데, 연령은 만 15세

에서 19세( $M=17.42$ ,  $SD=.63$ )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참여자가 설문지와 검사지에 응답하기 전에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음을 알렸다. 각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면서 소비한 시간은 개인차는 있었으나 약 30분이었다.

### 조사 도구

#### 갈등책략 척도

한국어로 번안된 Straus의 갈등책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s, 1979)가 연애편애력 행사, 연애편애력 피해, 부모간의 폭력 목격, 자녀 학대에 대한 피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목격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번역 후에 대학의 재직중인 2명의 영문학과 교수들이 감수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이 갈등상황에서 이성친구에게 사용했던 책략들(20문항), 이성친구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책략들(20문항), 아버지가 갈등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사용했던 책략들(20문항), 어머니가 갈등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사용했던 책략들(20문항), 아버지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책략들(20문항), 어머니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책략들(20문항), 타인이 갈등상황에서 타인에게 사용했던 책략들(20문항)이 측정되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없다', 2-'한 번', 3-'한 번에서 세 번', 4-'네 번에서 다섯 번', 5-'다섯 번 이상'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11번에서 20번까지가 신체적 공격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갈등상황에서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어떤 것을 던졌다', '떠밀거나 잡거나 찼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발로 차거나 이로 물거나 주먹으로 쳤다', '어떤 것으로 때렸거나 때리려고 했다', '심하게 구타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로 위협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를 사용했다', '성적행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다'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10문항들의 Cronbach alpha값은 연애편애력 행사가 .87,

연애폭력 피해가 .89,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 목적이 .89,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폭력 목적이 .86,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 .87,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폭력 .78, 타인이 타인에게 행사하는 폭력 목적이 .92이었다.

### 폭력정당화 척도

연애폭력을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Foo와 Margolin의 폭력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1995)를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참여자들이 8가지 상황에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대 그러면 안 된다', 2-'심하지 않으면 괜찮다', 3-'그럴 수도 있다', 4-'맞을 짓을 했으니 당연하다'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8가지 상황들은, 1) 그/그녀가 헤어지고 위협할 때, 2) 술 취해 정신 나간 짓을 할 때, 3) 논쟁을 하다가 그/그녀가 먼저 때릴 때, 4) 상대방이 자신을 속인 것이 드러났을 때, 5) 자신을 욕이 섞인 호칭으로 불렀을 때, 6)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노닥거릴 때, 7)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바보로 만들 때, 8)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할 때로 묘사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8에서 32까지이다. 폭력정당화 척도의 Cronbach alpha값은 .88을 나타냈다.

### 자아존중감 척도

전병제가 번안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가 참여자들의 자아존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문항의 응답은 1-'대체로 그렇지 않다', 2-'보통이다', 3-'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고, 부정적 문항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반대로 환산하여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0에서 40까지이고, Cronbach alpha값은 .81이었다.

질문지: 인구통계학적 자료, 연애기록, 음주여부, 폭력환경노출 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지가 참여자들에게 주어졌다. 여러 가지 연애기록 중에 현재 애인의 유무, 현재까지 사귀어 온 사람만이 모든 참여자로부터 보고되었다. 음주에 대한 질문으로는 음주횟수, 음주량, 음주기간을 묻는 세 가지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폭력행사 경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싸운 경험을 묻는 3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평정척도이고 점수의 분포는 0에서 12까지이다. TV폭력물 시청은 자신과 가족의 폭력을 및 범죄교발 프로그램의 선호도를 묻는 세 문항과 폭력적 컴퓨터게임은 하루 평균 컴퓨터게임을 하는 시간을 묻는 문항과 격투기 및 전투게임의 선호도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 결 과

### 연애폭력과 예측기대변인

총 신체적 폭력 점수는 갈등척략척도 11번에서 12번 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점이고, 연애폭력 행사 여부는 11번에서 20번 문항들에서 한 번 이상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표시했으면 1을 아니면 0으로 부호화하였다. 이렇게 부호화된 점수는 이후에 logistic 회귀분석에서 사용되었다.

표 1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이성친구를 사귀어 오면서 행했던 폭력을 성별로 나누어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연애폭력의 점수에서는 남학생(M=1.50, SD=4.26)과 여학생(M=2.35, SD=5.40)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한 번이라도 연애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이 23.4%이었고 여학생은 41.1%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0.59, p<.00).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연애폭력 행사가 남학생의 연애폭력 행사보다 더 빈번하다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가지의 폭력유형 중에 '어떤 것을 던졌다'는 응답(F=6.57, p<.05)과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응답(F=15.10,

표 1. 갈등척락척도에서 연애평력 문항에 대한 남녀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신체적 폭력 유형	남 (n = 128)			여 (n = 178)			F	p
	%	M	SD	%	M	SD		
어떤 것을 던졌다	6.8	.13	.58	16.3	.38	1.00	6.57	.011
떠밀거나 잡거나 찼다	14.4	.35	.94	26.4	.52	1.07	1.97	.161
손바닥으로 때렸다	11.7	.23	.71	30.9	.71	1.26	15.10	.000
차거나 물거나 주먹으로 쳤다	8.6	.22	.81	18.0	.40	1.00	3.00	.085
어떤 것으로 때렸거나 치려고 했다	3.9	.05	.29	3.4	.09	.54	.44	.506
심하게 구타했다	1.6	.05	.39	1.7	.05	.43	.01	.939
칼 혹은 다른 무기로 위협했다	3.9	.11	.62	1.7	.05	.43	.97	.326
칼 혹은 다른 무기를 사용했다	3.1	.09	.53	1.7	.05	.43	.41	.521
성적행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	3.9	.13	.68	2.2	.06	.43	1.44	.231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다	4.7	.14	.72	1.1	.05	.43	2.48	.116
총 연애평력 점수		1.50	4.26		2.35	5.40	2.18	.141
한번 이상 연애평력 행사 경험	23.4	.23	.43	41.1	.41	.49	10.59	.001

$p < .000$ 에서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두 문항 모두에서 여학생들의 점수가 높았다. 그 외 다른 문항에서는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떠밀거나 잡거나 찼다(14.4%)'는 유형의 신체적 공격을 이성을 사귀면서 가장 많이 행했다고 보고했으며, 여학생들은 '손바닥으로 때렸다(30.9)'는 유형을 폭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하게 구타했다'는 남학생이 1.6%, 여학생이 1.7%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을 사용해서 성행위'를 시도한 남학생이 4.7%이었고, 여학생도 1.1%가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평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남녀차이를 나타내주는 변량분석의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있다. 성장해 오면

서 폭력적인 환경에 대한 노출은 남학생들과 여학생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6.40$ ,  $p < .05$ ).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폭력적인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서의 폭력경험도 남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F=57.73$ ,  $p < .000$ ). 폭력성이 짙은 컴퓨터게임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F=46.86$ ,  $p < .000$ )는 것을 보여주었다. 폭력 수용태도에서도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들이 폭력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F=6.12$ ,  $p < .05$ ). 그러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7.73$ ,  $p < .000$ ). 연애평력 피해, 부→모 폭행(아버지가 어머니 폭행), 모→부 폭행(어머니가 아버지 폭행), 아버지로부터의 자녀학대 피해, 어머니로부터의 자녀학대 피해, TV폭

표 2. 연애폭력 예측기대변인들의 남녀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변인	범위	남		여		F	p
		M	SD	M	SD		
부 -> 모 폭행	0-40	1.88	5.04	2.14	5.30	.20	.653
모 -> 부 폭행	0-40	.70	2.63	1.06	2.95	1.22	.270
부 -> 본인 폭행	0-40	2.30	4.91	1.72	3.78	1.35	.246
모 -> 본인 폭행	0-40	1.41	2.93	1.87	3.60	1.40	.238
폭력환경에 노출	0-40	5.62	8.46	3.46	6.49	6.40	.012
학교폭력 경험	0-12	4.73	3.54	2.03	2.66	57.73	.000
TV폭력물 시청	3-48	14.82	8.11	16.63	7.90	3.82	.052
폭력적 컴퓨터게임	1-16	3.38	4.05	.94	2.14	46.86	.000
폭력 수용태도	8-32	12.07	5.22	13.60	5.40	6.12	.014
사귀는 사람 유무	0-1	.53	.50	.61	.49	1.40	.238
사귀 사람 수	1-100	5.13	9.77	3.94	3.45	2.27	.133
음주	0-64	10.52	12.88	7.82	10.88	3.94	.048
연애폭력 피해	0-40	1.45	5.00	.66	2.33	3.47	.064
자아존중감	10-40	26.89	4.10	26.69	4.71	.149	.700

력물 시청, 사귀는 사람 유무, 사귀어 온 사람 수, 자아존중감에서는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연애폭력 및 예측기대변인간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애폭력과 그것의 예측기대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다. 부→모 폭력은 남녀 모두에게서 모→부 폭력( $r=.49, p<.01; r=.58, p<.01$ )과 아버지로부터의 자녀학대 피해( $r=.61, p<.01; r=.46, p<.01$ )와 아주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어머니로부터의 자녀학대와는 여학생들 사이에서만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21, p<.01$ ). 부→모 폭력은 특이하게도 남학생들에서만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r=.33, p<.01$ ), 폭력 수용태도( $r=.26, p<.01$ ), 음주( $r=.30, p<.01$ )와도 정적상

관을 나타냈다. 모→부 폭력은 부→모 폭력 외에도 아버지로부터의 자녀학대( $r=.24, p<.01; r=.50, p<.01$ )와 어머니로부터의 자녀학대( $r=.23, p<.05; r=.39, p<.01$ )와도 남녀 모두에게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부 폭력은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연애폭력 피해( $r=.13, p<.05$ )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 $r=.20, p<.01$ ), 폭력 수용태도( $r=.15, p<.05$ ), 음주( $r=.17, p<.05$ )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남녀 모두에게서 아버지로부터의 자녀학대는 어머니로부터의 자녀학대와도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r=.46, p<.01; r=.44, p<.01$ ), 남학생들의 경우는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r=.65, p<.01$ )과는 아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 $r=.32, p<.01$ ), 폭력 수용태도( $r=.36, p<.01$ ), 음주( $r=.41, p<.01$ ), 연애폭력 행사( $r=.20, p<.05$ )와도 정적상관을 보였다. 어머니로부터의 자녀학대는 남녀 모두에게서



표 3. 연애편력 및 예측기대변인들간의 상관행렬표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부 -> 모 폭행	남 여														
2. 모 -> 부 폭행	.49** .58**														
3. 부 -> 본인 폭행	.61** .46**	.24** .50**													
4. 모 -> 본인 폭행	.11 .21**	.23* .39**	.46** .44**												
5. 폭력환경에 노출	.33** -.02	.07 .09	.65** -.01	.31** .18**											
6. 학교폭력 경험	.13 .10	.09 .20**	.32** .09	.06 .12	.38** .20**										
7. TV폭력물 시청	.14 .12	.05 .03	.11 .03	.05 .10	.07 .01	.20* .27**									
8. 폭력적 컴퓨터게임	.09 -.02	-.08 .06	.17 -.03	.13 -.02	.22* .02	.28** .37**	.39** .37**								
9. 자아존중감	.04 -.07	.12 -.02	.00 -.07	.10 -.15*	.08 -.05	.14 -.22**	.15 .03	.05 -.07							
10. 폭력 수용태도	.26** .14	.05 .15*	.36** .06	.16 .16*	.36** .17**	.17 .09	.09 .02	.21* .00	.05 .05						
11. 사귀는 사람 유무	.03 -.12	.07 -.08	-.01 -.13	-.04 -.14	-.09 .08	.04 -.09	.01 .02	-.08 -.01	-.04 .10	.00 .04					
12. 사귀는 사람 수	.05 .10	.04 .11	.09 .12	-.02 .13	.06 .18*	.15 .22**	-.09 .04	.05 -.05	.06 -.15	.07 .14	-.09 -.09				
13. 음주	.30** .02	-.04 .17*	.41** .03	.14 .21**	.43** .33**	.43** .48**	.16 .20**	.17* .35**	.08 -.11	.24** .05	-.12 -.09	.29** .19*			
14. 연애편력 피해	.09 .00	.13* .10	.17 .02	.37** .08	.30** .48**	.33** .18*	.13 -.01	.15 .03	.13 -.03	.27** .09	-.08 -.03	.09 .07	.30** .22**		
15. 연애편력 행사	.01 -.03	.07 .07	.20* .00	.29 .05	.34** .16*	.22* .41**	.27** .28**	.23** .48**	-.01 -.03	.39** .00	-.17 -.19*	.08 .10	.33** .57**	.51** .30**	

\* p<.05    \*\* p<.01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과도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31, p<.01; r=.18, p<.01), 남학생들의 경우는 연애편력 피해와도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r=.37, p<.01), 여학생들의 경우는 자아존중감 (r=-.15, p<.01)과 부적상관과 폭력 수용태도(r=.16, p<.05)와 음주(r=.21, p<.01)와도 정적상관을 보였다.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은 남녀 모두에게서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r=.38, p<.01; r=.20, p<.01), 폭력수용

태도(r=.36, p<.01; r=.17, p<.01), 음주(r=.43, p<.01; r=.33, p<.01), 연애편력 피해(r=.30, p<.01; r=.48, p<.01), 연애편력 행사(r=.34, p<.01; r=.16, p<.05)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남학생들의 경우는 폭력적 컴퓨터게임(r=.22, p<.01)과 여학생들의 경우는 사귀는 사람 수(r=.18, p<.05)와도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은 남녀 모두에게서 TV폭력물 시청(r=.20, p<.05; r=.27, p<.01), 폭력적

컴퓨터게임( $r=.28, p<.01$ ;  $r=.37, p<.01$ ), 음주( $r=.43, p<.01$ ;  $r=.48, p<.01$ ), 연애평력 피해( $r=.33, p<.01$ ;  $r=.18, p<.05$ ), 연애평력행사( $r=.22, p<.05$ ;  $r=.41, p<.01$ )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여학생들의 경우는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22, p<.01$ ). TV포력물시청은 상관을 보였던 다른 변인들 외에도 남녀 모두에게서 포력적 컴퓨터게임( $r=.39, p<.01$ ;  $r=.37, p<.01$ ), 연애평력 행사( $r=.27, p<.01$ ;  $r=.28, p<.01$ )와도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음주( $r=.20, p<.01$ )와도 정적상관을 보였다. 포력적 컴퓨터게임은 음주( $r=.17, p<.05$ ;  $r=.35, p<.01$ ), 연애평력 행사( $r=.23, p<.01$ ;  $r=.48, p<.01$ )와도 정적상관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의 경우는 포력 수용태도 와도 정적상관을 보였다( $r=.21, p<.05$ ). 포력 수용태

도는 남학생들의 경우에서만 음주( $r=.24, p<.01$ ), 연애평력 피해( $r=.27, p<.01$ ), 연애평력 행사( $r=.39, p<.01$ )와도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경우 현재 사귀는 사람의 유무는 연애평력 행사와 부적상관이 있었다( $r=-.19, p<.05$ ). 사귀 사람의 수는 남녀 모두에게서 음주와도 정적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r=.29, p<.01$ ;  $r=.19, p<.05$ ).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이성을 사귀는 것은 음주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시켜준다. 음주는 고등학생 남녀 모두에게서 연애평력 피해( $r=.30, p<.01$ ;  $r=.22, p<.01$ ), 연애평력행사( $r=.33, p<.01$ ;  $r=.57, p<.01$ )와도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서 연애평력 피해는 연애평력 행사와 높은 정적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r=.51, p<.01$ ;  $r=.30, p<.01$ ).

표 4. 연애평력 행사 예측기대변인들의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기대변인	남						여					
	B	S.E.	Wald	Sig	R	Exp(B)	B	S.E.	Wald	Sig	R	Exp(B)
부 -> 모 폭행	-.17	.127	1.83	.176	.000	.84	-.18	.087	4.36	.037	-.090	.83
모 -> 부 폭행	.18	.154	1.35	.245	.000	1.20	.22	.13	2.61	.106	.050	1.24
부 -> 본인 폭행	-.15	.107	2.02	.155	-.012	.86	-.10	.083	1.38	.241	.000	.91
모 -> 본인 폭행	.08	.112	.49	.485	.000	1.08	.07	.070	1.11	.293	.000	1.08
포력환경에 노출	.12	.045	7.07	.008	.191	1.13	.09	.041	5.20	.023	.115	1.10
학교포력 경험	-.16	.099	2.47	.116	-.058	.86	.26	.096	7.20	.007	.147	1.30
TV포력물 시청	.06	.037	2.46	.117	.057	.82	-.02	.030	.25	.619	.000	.98
포력적 컴퓨터게임	-.19	.097	4.01	.045	-.120	.82	.16	.105	2.45	.117	.043	1.18
자아존중감	-.10	.071	2.15	.142	-.033	.90	.07	.048	1.88	.171	.000	1.18
포력 수용태도	.11	.057	3.61	.057	.108	1.11	.06	.038	2.23	.136	.03	1.06
사귀는 사람 유무	-.61	.516	1.38	.240	.000	.55	.54	.447	1.49	.223	.000	1.72
사귀 사람 수	.00	.030	.02	.888	.000	1.00	.23	.073	10.23	.001	.185	1.27
음주	.03	.025	1.75	.186	.000	1.03	.02	.027	.69	.408	.000	1.02
연애평력 피해	.10	.058	2.92	.088	.081	1.10	1.34	.351	14.48	.000	.228	3.81

## 연애평력에 대한 예측기대변인의 회귀분석

어떤 변인들이 연애평력 행사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남녀 두 집단을 비교해 보기 위해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예측기대변인으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목격,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 목격, 아버지로부터의 자녀학대 피해, 어머니로부터의 자녀학대 피해, 폭력적인 환경에의 노출,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 TV폭력물 시청, 폭력적 컴퓨터게임, 자아존중감, 폭력 수용태도, 사귀는 사람 유무, 사귀는 사람 수, 음주, 연애평력 피해가 포함되었다. 연애평력 행사 여부가 준거변인이므로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p < .01$ )과 폭력적 컴퓨터게임( $p < .05$ )만이 남학생들의 연애평력 행사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연애평력을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들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행목격( $p < .05$ ),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p < .05$ ),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 $p < .01$ ), 사귀는 사람 수( $p < .01$ ), 연애평력 피해( $p < .0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는 음주를 포함하여 몇몇의 변인들이 연애평력 행사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것은 개인의 연애평력 점수가 종속변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애평력을 행사여부를 종속변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음주는 연애평력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이성친구를 사귀면서 행하는 폭력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런 연애평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남녀 모두 미국의 고등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연애평력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성친구와 데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세 명중에 한 명 정도가 사귀

는 이성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했다고 보고했다.

이성을 사귀는 동안 폭력을 행사한 경험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은 나타났다. 이것은 이전에 몇몇의 연구들(Foshee, 1996; Plass et al., 1983)과 일관된 결과인데, 최근 메타분석(Archer, 2000)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면 특이한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최근 한국 대학생들의 연애평력에 관한 연구(서경현 등, 2001)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연애평력 점수에서는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남학생들의 연애평력의 내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폭력의 유형에 따라라도 남녀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는 주로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던지'거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유형의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음 네 문항에서만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고 그 외의 문항에서는 남학생들과 비슷하거나 대부분 더 낮은 평균을 보였다. 이것은 남학생들의 폭력 유형이 더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것일 것이라는 추측을 더 지지해준다.

여학생들이 연애평력에 대해 남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앞서 일련에 연구들(예: Arias & Johnson, 1989 등)에서 연애평력을 행했거나 연애평력에 피해를 당했던 경험자들이 연애평력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결과와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학교에서의 폭력경험, 폭력적 컴퓨터게임, 음주 등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경험에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특이한 결과는 아니었다.

가정폭력(부모 사이에 폭력, 부모의 자녀학대)의 유형 사이에 서로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는 것은 예상밖에 결과는 아니었으나, 이런 가정폭력들이 학생들의 음주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상관분석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남학생들의 연애평력 피해가 폭력 수용태도, 특히 여성인 어머니로부터의 자녀학대와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

들의 음주와 폭력적 컴퓨터게임은 여러 가지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요소들과 상관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PC방 문화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런 결과는 청소년 교육과 선도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 음주는 남녀 모두에게서 모두 연애평력 피해와 높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시사하는바가 크다. 청소년 음주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결과이다. 남학생들의 폭력수용태도와 연애평력 피해가 정적상관이 있다고 나타난 결과도 추후 연구를 위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애평력 및 예측기대변인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거의 모든 변인 사이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된 O'Keefe(1997)의 연구결과와는 달랐는데, 이것은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로 추측할 수 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과 폭력적인 컴퓨터게임을 하는 것이 연애평력 행사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경우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목격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여학생들에게만 부모간의 폭력 목격이 연애평력과 상관이 있다는 Sigelman(1984)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연애평력 연구(서경현 등, 2001)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학생들의 연애평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 사귀 사람 수, 연애평력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목격,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은 전후관계성 변인들이고, 사귀 사람 수와 연애평력 피해는 상황적 변인들이다. 위의 결과는 여학생들과 남학생들 모두 이성을 사귀면서 갈등상황이 생기면 사회적 환경에서 학습되어진 것들이 폭력을 사용하는데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여학생들은 어머니에게 행하는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여 갈등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폭력을 당하고 자기방어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Molitor와 Tolman의 연구(1998)에서도 여성들은 연애

폭력 피해를 연애평력 행사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남녀 모두에게서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이 연애평력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O'Keefe(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른 문화권에서의 여러 연구들과는 결과의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지만, 본 연구도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변인들이 연애평력을 예측해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한국의 고등학생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도 비슷한 연구들이 요구되어진다. 특히 본 대상자들은 서울 근교의 위성도시(suburban)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 최근 한 연구(Spencer & Bryant, 2000)에서는 시골(rural)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더 연애평력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에 따른 비교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연애평력 수준도 대학생들만큼이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선진국들은 연애평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중재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예방 및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을 따로 마련하며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이런 일은 10-20년에 걸친 연구, 특히 최근에 얻는 종단적 연구의 결과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연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시점에서 본 연구가 많은 공헌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2001). 대학생들의 연애평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회지, 2(1), 75-98.
- 이영자(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

## 학위 청구논문.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51-680.
- Arias, I., & Johnson, P. (1989). Evaluations of physical aggression among intimate dya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98-307.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Bookwala, J., Frieze, I. H., Smith, C., & Ryan, K. (1992).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7, 297-311.
- Burke, P. J., Stets, J. E., & Pirog-Good, M. A. (1988). Gender identity, self-esteem and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53, 272-285.
- Cate, R. M., Henton, L., Koval, J., Christopher, F. S., & Lloyd, S. (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 79-90.
- Comins, C. A. (1984). "Courtship violence: A recent stud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aper delivered at the Second National Conference for Family Violence Researchers*, Durham, NH. 7-10.
- Coleman, D. H., & Straus, M. A. (1983). Alcohol abuse and family violence. In E. Gottheil, K. A. Druley, T. E. Skoloda, & H. M. Waxman (eds.), *Alcohol, drug abuse, and aggression*,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DeMaris, A. (1987). The efficacy of a spouse abuse model in accounting for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8, 291-305.
- Famularo, R., Stone, K., Barnum, R., & Wharton, R. (1986). Alcoholism and severe child mal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6, 482-485.
- Follette, V., & Alexander, P. C. (1992). Dating violence: Current and historic correlates. *Behavioral Assessment*, 14, 39-52.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91-305.
- Foshee, V. (1996).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ating abuse prevalence, types, and injuries. *Health Education Research*, 11, 275-286.
- Foshee, V. A., Bauman, K. E., & Linder, G. F. (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Examining social learning and social control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31-343.
- Foshee V. A., Bauman, K. E., Greene, W. F., Koch G. G., Linder, G. F., & MacDougall J. E. (2000). The Safe Dates Program: 1-year follow-up resul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0(10), 1619-1622.
- Foshee V. A., Linder, G. F., & MacDougall J. E., & Bangdiwala, S.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longitudinal predictors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Preventive Medicine*, 32(2), 128-141.
- Friedman, J., & Rosenbaum, D. P. (1988). Social control theory: The salience of components by age, gender, and type of crim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4, 363-381.
- Garnezy, N. (1987).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Stevenson, J. D. (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xford: Pergamon Press, 213-233.
- Hamilton, C. J., & Collins, J. J. (1981). The role of alcohol in wife beating and child abuse: A review of the literature. J. J. Collins (eds.) *Drinking and crime*. New York: Guilford Press. 253-282.
- Henderson, C. W. (2000). Effects of Dating Violence Studied. *Medical Letter on the CDC & FDA*, 11/12/2000, 2.
- Henton, J., Cate, R., Koval, J., Llyod, S., & Christopher, F.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 467-482.

- Hird, M. J. (2000). An empirical study of adolescent dating aggression in the U. K. *Journal of Adolescence*, 23(1), 69-78.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mes W. H., West, C., Deters K. E., Armijo, E. (2000). Youth dating violence. *Adolescence*, 35(139), 455-465.
- Levy, B. (1990).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 An emerging issue for the 1990s. *Response*, 13, 3-12.
- Lloyd, S, Koval, J., & Cate, R. (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 M. A. Pirog-Good & J. E. Stets (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New York: Praeger, 127-142.
- Marshall, L. L., & Rose, P. (1988). Family of origin and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414-18.
- Molidor, C. E.,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4, 119-134.
- Nye, F. I. (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Wiley.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46-568.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39-57.
- O'Keefe, M., Brockopp, K., & Chew, E. (1986). Teen dating violence. *Social Work*, 31, 456-468.
- O'Keefe, N. K., & Treister, L. (1998). Victim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Are the predictors different for males and females? *Violence Against Women*, 4, 195-223.
- Plass, M. S., & Gessner, J. C. (1983). Violence in courtship relations: A southern sample. *Free Inquiry in Creative Sociology*, 11, 198-202.
- Ray, A. L., & Gold, S. R. (1996). Gender roles, aggression, and alcohol use in the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Research*, 33, 47-56.
- Reiss, A. J. (1951). Delinquency as the failure of personal and social contro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 196-207.
- Riggs, D. S, Murphy, C. M., & O'Leary, K. D. (1989). Intentional falsification in reports of interpartner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20-232.
- Riggs, D. S., & O'Leary, K.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 (1990). Multiple predictor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61-73.
- Rutter, M. (1987).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igelman, C. K., Berry, C. J., & Wiles, A. (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 530-548.
- Smith, J. P., & Williams, J. G. (1992). From abusive household to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7, 153-165.
- Spencer G. A., & Bryant S. A. (2000). Dating violence: a comparison of rural, suburban, and urbanteen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7(5), 302-305.
- Stets, J. E. (1990).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01-514.
- Stets, J. E., & Henderson, D. A. (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40, 29-36.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530-548.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Symons, P. Y., Groer, M. W., Kepler-Youngblood, P., & Slater, V. (1994).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7(3), 14-23.
- Tontodonato, P., & Crew, B. K. (1992). Dating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der: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 Victims*, 7, 3-14.
- Weisz, A. N., & Black, B. M. (2001). Evaluating a sexual assault and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urban youths. *Social Work Research*, 25(2), 89-101.

1 차원고접수일 : 2001. 9. 14

최종원고접수일 : 2001. 10. 10

##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Suh, Kyung Hyun

Division of Liberal Art & General Education  
Sahmyook University

Lee, Young Ja

Counseling Center  
Namyangju C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wa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dating violence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determine the patterns of predictors associated with it by multivariate analysis. Participants were 128 male and 178 female students from 3 high schools at Namyangju City who had been involved in a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 Anticipating variables for dating violence were selected by researchers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Results indicated that 23.4% of male students and 41.1% of female students had been inflicting violence toward their dating partners, and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girls 'threw something' or 'slapped' their dating partners more frequently than the boys did. The girls were more positive toward violence than the boys, while the boys were more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and expressed aggression and playing violent computer game, and drinking than the girls. The remarkable finding on correlational analysis is that there is high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ale recipient of dating violence and mother's corporal punishment. And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ecipient of dating violence and community violence, history of aggression, and drinking for both male and fema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community violence and playing violent computer games are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for male, while father to mother violence, community violence, number of dating partners, and recipient of dating violence are predictors for female.

Key Word : adolescents, dating violence, family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